

LG엔솔, 세계 최대 규모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
약 23만 가구 사용 가능한 용량
외부환경 변화에도 안정적 운영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에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발전사인 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북동부의 모스랜딩 지역에 가동 중인 1.2GWh 규모의 전력망 ESS에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단일 ESS 사이트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사용량이 높은 피크시간대에 약 22만 5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Vistra는 천연가스, 핵, 태양광 등을 포함해 미국 내 39GW 규모의 발전 설비능력을 갖추고 있는 발전사다.

Vistra는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미국 발전사 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모스랜딩 지역에 가동 중인 모스랜딩 발전소 전경.

의 '모스랜딩 천연가스 발전소'의 퇴역한 노후 화력 발전 설비를 전력용 ESS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급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의 혁신적인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이 공급됐다.

기존에는 배터리 팩과 랙을 해당 ESS 사이트에 별도로 출하시킨 후 현장에서 조립해 ESS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배터리 랙에 설치 및 조립을 완료한 후

ESS 사이트로 출하시킴으로써 ESS 현장 설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또한 고성능 배터리 셀이 적용된 TR 1300은 배터리 랙의 2단 적재가 가능해 공간 효율성은 높이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제품은 업계의 가장 엄격한 화재 관련 안전 표준도 충족하고 있다.

TR 1300 랙은 글로벌 안전인증 회사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열 폭주 화재 전이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방법 표준인 UL9540A 테스트를 실시했고, 화재는 인접한 배터리 랙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은 미국 토목공학회 ASCE 7-16의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 기준에 부합하며 지진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 중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 신영준 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

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차별화된 ESS 배터리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며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미국 ESS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배터리 기반의 ESS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전력망 ESS 시장 규모는 6.5GWh로 글로벌 전력망 ESS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연평균 54%의 성장으로 오는 2025년에는 현재보다 약 9배 수준인 55.3G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GS칼텍스, 국내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 도입
지속가능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GS칼텍스가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해 ESG 경영에 앞장선다.

GS칼텍스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획득한 스웨덴 에너지기업 룬딘사의 노르웨이 요한 스베드럽(Johan Sverdrup)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GS칼텍스의 일일 최대 원유 처리량은 80만 배럴로 이번 노르웨이산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은 3일 처리량 정도의 물량이지만,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GS칼텍스가 도입한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은 7월에 선적하며 오는 9월 중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룬딘사는 노르웨이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한 뒤 유럽 내 큰 규모의 석유개발



GS칼텍스 여수공장.

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요한 스베드럽 유전은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서쪽 140km 떨어진 해상유전으로 전체 매장량 27억 배럴, 일일 약 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6일 룬딘사는 요한 스베드럽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일반적인 유전보다 평균 40배 낮은 탄소를 배출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의 'CarbonClear' 저탄소 인증과 나무심기 등의 탄소 포획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 국제인증기준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의 인증을 받아 원유 생산이 전체적으로 탄소제로임을 최종

인증 받게 됐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회사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확대하려는 노력에 발맞춰, 세계 최초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받은 룬딘사의 탄소중립 원유를 국내에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친환경 리더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해 저유황 중유를 공정 개선작업을 통해 동일한 열량에도 저유황 중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량 대체했다.

/김수지 기자

볼보, SSAB와 무화석 연료 강철 공동개발

전기·수소로 점결탄 대체 목표
수소 환원철로 만든 SSAB 강철 확보

볼보자동차가 강철도 화석연료 없이 만들기에 도전한다.

볼보는 스웨덴 SSAB와 무화석 연료 고품질 강철을 공동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철광석을 만들 때 필요했던 점결탄을 전기와 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최초의 기술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다.

SSAB는 스웨덴의 철광석 생산기업 LKAB와 에너지 기업, 바덴팔과 함께 합작사 하이브리트를 세우고 친환경 강철 생산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이끌어온 기업이다. 이번 협업으로 볼보자동차는 자동차 제조기업 중 최초로 하이브리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볼보자동차는 스웨덴 룰레오(Lulea) 소재에 하이브리드 파일럿 공장에서 수소 환원철로 만든 SSAB 강철을 업계 최초로 확보해 컨셉카를 비롯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볼보자동차

또한 SSAB는 2026년까지 무화석 강철을 상업적인 규모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볼보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에 이를 사용하는 최초의 제조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SSAB의 회장 겸 CEO인 마틴 린드 크비스트는 "우리는 최종 고객에게까지 완전히 화석 없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획기적인 기술은 사실상 탄소 배출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볼보자동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를 위한 무화석 연료 철강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KT, 웹캐시 그룹과 금융시장 선도 '맞손'

전략적 지분투자·사업협력

KT가 본격적인 금융 시장 선도를 위해 국내 1위 엔터프라이즈 핀테크 전문 기업 웹캐시 그룹과 손을 잡는다.

KT는 웹캐시 그룹과 전략적 지분투자 및 B2B(기업간) 금융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사업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으며, KT 구현호 대표와 웹캐시 그룹 석창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웹캐시 그룹은 '경리나라'를 개발해 B2B 핀테크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웹캐시 그룹에는 기업의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웹캐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론',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플레이' 등이 속해 있다.

KT는 웹캐시 그룹의 웹캐시, 비즈플레이, 로움아이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총 236억의 지분을 투자한다. 지난 4월 B2C 금융 기업뱅크샐러드 지분 투자에 이어 두 번째 금융 기업 투자행보다.

핀테크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22.4% 성장을 기록했으며, 기업들의 DX(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라 B2B 핀테크 시장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와 웹캐시

그룹의 협력으로 B2B 금융 DX 시장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KT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플랫폼 기술력 및 유무선 인프라와 웹캐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핀테크 서비스를 연계해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고, 솔루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웹캐시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경리나라', '비즈플레이'에 KT AI,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고도화 서비스인 'KT경리나라'와 'KT비즈플레이'를 출시할 계획이다. KT는 또 이 두 서비스에 기가지니 인사이트를 적용한 AI 기반 '아바타' 솔루션을 추가한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아시아나, 워커힐 호텔과 '써머 패키지'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

아시아나항공이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비스타 워커힐 서울'과 함께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아시아나클럽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로 비스타 워커힐 '써머 패키지'를 예약할 수 있으며 투숙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라고 밝혔다.

'써머 패키지' 3종은 모두 비스타 딜릭스 객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포레스트파크 입장권과 리버뷰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REFRESH 패키지 ▲조식과 라운지가 포함된 VIVID 패키지 ▲조식, 포레스트파크, 야외수영장 모두 이용 가능한 SPLASH 패키지를 최소 3만3500 마일리지부터 최대 7만 1500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하다.

단 본인 마일리지 사용만 가능하며 가족 합산 또는 양도 마일리지는 사용 불가하다.

/김수지 기자